

한국사연구회

제340차 월례발표회

자 료 집

일시 : 2022년 4월 9일(토) 14:00~16:10

장소 : 줌

<https://korea-ac-kr.zoom.us/j/2532664989?pwd=aGdWNFBvR3M0aHdqUGE5clgwWXVldz09>

식 순

사회: 홍종욱(서울대)

제1발표 14:00~15:00

해방 직후(1945.8~1950.6), 국악원의 정치성 변화

발표 : 최혜진(전남대)

토론 : 이수정(한국학중앙연구원)

휴식 15:00~15:10

제2발표 15:10~16:10

1960년대 북소·북중관계와 ‘혁명전통’의 변화

발표 : 문미라(역사문제연구소)

토론 : 조수룡(국사편찬위원회)

목 차

■ 제1발표 ■ 해방 직후(1945.8~1950.6), 국악원의 정치성 변화

- 발표 : 최혜진(전남대) 1
- 토론 : 이수정(한국학중앙연구원) 13

■ 제2발표 ■ 1960년대 북소·북중관계와 ‘혁명전통’의 변화

- 발표 : 문미라(역사문제연구소) 15
- 토론 : 조수룡(국사편찬위원회) 32

해방 직후(1945.8~1950.6), 국악원의 정치성 변화

최혜진(전남대)

1. 머리말
2. 해방 직후 국악원 결성과 함화진 원장기(1945.8~1947.8)의 국악원 정치성
3. 박헌봉 원장기(1947.9~1948.8) 국악원 재편과 정치성 변화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1948.9~1950.6) 국악원의 국가적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해방 후 한국인은 민족주의에 기초해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음악인들 역시 민족 국가 수립에 이바지하는 민족음악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들은 1945년 8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이하 문협) 산하 조직으로 조선음악건설본부(이하 음건)을 조직했다. 음건은 정치적 노선과 이념에 상관없이 서양음악·전통음악 전공자 모두를 포괄하는 음악 단체로서 작곡, 기악, 성악, 국악부 위원회를 두었다. 음건은 민족음악 수립이라는 목표 하에 새로운 음악문화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내부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노선과 이념으로 인해 음건은 ‘친일잔재 소탕, 특권계급문화 청산, 민족문화 양양·개발, 문화통일전선 형성’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¹⁾

전통음악계 역시 민족국가 건설 열망 속에서 단체들을 조직하고, 민족음악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전통음악 종사자들은 해방의 기쁨을 보여주는 ‘해방가’, 국가건설의 의지를 표현한 ‘건국가’ 등의 작품을 만들었다.²⁾ 또한, 그들은 “새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열망”을 창극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³⁾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민족음악의 주체가 되고자 국악원과 조선고전음악연구회, 시조연구회, 조선창극단 등 300개에 이르는 단체들을 결성하였다.⁴⁾ 이들 단체 중 아악부와 시조연구회 등 몇 개의 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단체는 민속악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악원은 해방 직후 음악건설본부 조직의 하나인 국악위원회와 국악회를 모태로 한

1) 최혜진, 2020, 「해방 직후(1945.8~1950.6) 남한에서의 국악의 등장과 정체성 구성」, 『역사연구』 38, 170쪽.

2) 「라디오」, 『中央新聞』, 1946.1.21 ; 「放送順序」, 『大東新聞』, 1946.1.21.

3) 「朝鮮古典音樂研究會를 結成」, 『조선일보』, 1945.12.11 ; 「革命者救援코저 古典樂研究會地方行」, 『중앙신문』, 1946.1.21.

4)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하 USAMGAIK), 1947 'History of Education Beareau', p. 1229 ; 정태수 편, 1992, 『美軍定期 韓國教育史資料集(上) 1945-1948』, 홍지원.

전통음악계의 대표적 단체였다. 국악원은 3개의 지부와 1,2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 하였던 당대 대표적인 전통음악 단체로서 전국적으로 활동했었다. 하지만 1947년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 국악원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 시기 이왕직 산하에 설치되어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아악부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립국악원으로 제도화되면서, 전통음악계는 아악부 중심으로 권력화·위계화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국악원은 ‘대한’국악원으로 개칭되면서 활동들이 더욱 위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국악원의 평가가 절하되면서, 현재, ‘대한국악원’이라는 명칭으로 해방 이후 활동했던 “사설 국악 단체의 하나”로 규정되었다.⁵⁾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본 발표는 해방 직후(1945.8~1950.6) 대표적 전통음악 단체였던 국악원의 정치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있어 본 발표문은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해방 직후 시기를 국악원 원장의 교체를 중심으로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각 함화진 원장기, 박헌봉 원장기,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 국악원과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 또 국악원과 정치 당파와의 관계의 추적을 통해 국악원의 정치성과 그 변화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발표문은 광고 자료를 주요 연구 자료의 하나로 이용하고자 한다. 특히 당대 신문 광고는 국악원의 활동과 관련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당대 전통음악계의 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끝으로 국악원 정치성 변화에 관한 이해는 국악원과 그것의 정치성 및 그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해방 직후 상황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된다.

2. 해방 직후 국악원 결성과 함화진 원장기(1945.8~1947.8)의 국악원 정치성

국악원은 해방 직후 음악건설본부 조직의 하나였던 국악위원회와 국악회를 모태로 하여 조직되어 활동했던, 당대 전통음악계의 대표적 단체이다. 국악원 설립 과정을 보면, 먼저 식민지 시기 조선음악협회 조선음악부 상무이사 박헌봉과 이왕직아악부와 조선음악부의 대표 및 조선음악협회 조선음악부 부장인 함화진은 1945년 8월 19일 문협 산하의 음악건설본부의 국악위원회를 구성하였다.⁶⁾ 국악위원회는 10일 후 8월 29일에 함화진을 위원장으로, “朝鮮古樂, 俗樂, 俗曲, 唱樂, 舞踊을 보전 발전시키고 新樂을 창립”하여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악회를 창립하였다.⁷⁾ 국악회는 1945년 11월 1일에 “朝鮮樂部와 朝鮮唱劇團, 朝鮮正樂傳習所, 李王職雅樂部의 代表責任者가 모여 解放의 기쁨과 아울러 흩어져 있던 여러 部門이 뜻깊이 뭉쳐” 국악원을 출범시켰다.⁸⁾ 이와 같이 출범된 국악원은 해방 직후 전

5) 송방송, 2007,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699쪽 ; 2012,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서.

6) 장사훈, 1961, 「國樂 五十年의 발자취」, 『國樂概要』, 청음사, 345쪽 ; 「國樂司本部設置」, 『每日新報』, 1945.8.18 ; 성경린, 「雅樂部는 儼存! 國樂院과는 關係없다」, 『文化通信』 6, 1945.12.24, 11쪽. 이 위원회는 함화진을 위원장으로, 박헌봉, 성경린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7) 「朝鮮國樂會 創立」, 『세계뉴스』, 1945.9.29 ; 박헌봉, 『唱樂大綱』, 84쪽.

8) 국악원 창립 날짜는 신문 매체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보도되어 있어 당대 미군정 기록을 따랐다. 관련 자료는, 최혜진, 2019, 『해방 5년 남한 전통음악계의 활동과 ‘국악’ 정체성 경쟁』,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통음악 단체들을 망라한 표적 단체로서 국악위원회 위원장인 함화진을 중심으로 전통음악 종사자들이 조직하였다.

그런데 실제 국악원의 결성은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다. 이는 국악회가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아악부와 함께 조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악회 위원회 소집 없이, 국악회가 국악원으로 개칭되었다는 점 그리고 궁중음악을 연주했던 아악부가 국악원의 한 부서로 조직되어 아악부가 반발했다는 점에서 보인다. 아악부는 국악원장인 함화진이 아악부를 사퇴한지 5년이 지나 “지금 별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악원을 해방을 기회로 하여 “한미친 잡으려는 謀利輩”, “分數도 몰고 名利에 사로잡혀” “큰 깃발을 펴놓고” 있는 단체로 비난했다.⁹⁾ 국악원의 일(一)부서로 설치된 것에 대해 아악부는 “到底히 忍耐할수없”을 정도로 ‘치욕적’이었다. 아악부의 반발과 비난은 해방 후 자신들의 위상과 지위 나아가 권력을 점하는 주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 국악원과 아악부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악원은 원장 함화진과 부원장 박헌봉 이하 3개국 12개부와 4개의 위원회 그리고 2개의 산하단체로 구성된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¹⁰⁾ 출범 초기 국악원 조직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무국과 사업국 그리고 문화국이 설치되었다. 총무국은 서무부와 재정부와 지방부로 이루어졌다. 지방부는 서울, 대구, 부산 3개의 지부가 있었고, 회원으로는 각각 600명, 320명, 122명 총 1,042명이 등록되어 있어, 국악원이 전국적 단체였음을 보여준다.¹¹⁾

사업국은 공연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부와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부로, 문화국 산하에는 아악부·정악부·창악부·속곡부·민요부·문예부·연구부 등 6개 부서를 두어, 국악원이 장르상 아악, 정악, 창악, 기악, 무용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악원이 장르상 음악만이 아니라 무용까지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국악’은 ‘음악’과 ‘무용’이 결합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국악원은 전통음악 교육 계획과 공연 예술 발전 도모를 위해 국악학교기성회와 국악극장설치위원회를 두었다. 이외에도 국악원은 전통음악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기간지 발간준비위원회와 전통음악 문헌·악기 수집위원회를 두었다. 이외에도 국악원은 직속단체로 국극사를 두었는데 창악부와 정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조직을 갖춘 국악원은 강령을 통해 자신의 음악관과 전통음악에 대한 의식 그리고 국악원의 지향 등을 제시하였다.¹²⁾ 국악원은 강령에서 전통음악을 “음악예술”로 또 “국악”을 ‘민족의 음악’(national music)으로 이해하고 정체화하였다. 그리고 국악원은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朝鮮國樂”을 접근하면서, “朝鮮國樂”의 “傳統”과 ‘조선음악의 전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의 조선전통음악예술’이 “特權階級”에 의해 “獨占”된 것을 비판하면서, “朝鮮民衆”에게 “開放”된 “新朝鮮音樂[을]建設”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악원은 전통음악과 관련 없는 극작가와 연출가 등을 [국악원]에 영입하여, 전통음악을 변화 발전시켜 “新樂” 즉, ‘새로운 음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¹³⁾ 뿐만 아니라 국악원은 전통음악의

9) 성경린, 「雅樂部는 儼存! 國樂院과는 關係없다」, 앞의 글 ; 성경린, 「雅樂의 將來」(四), 『中央新聞』, 1946.1.20.

10) 최혜진, 2019, 『해방 5년 남한 전통음악계의 활동과 ‘국악’ 정체성 경쟁』,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53-56쪽.

11) 최혜진, 2012, 「해방공간 재래음악계의 동향과 정체성 경쟁」,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2) 「『國樂院』創立」, 『新朝鮮報』, 1945.11.9 ; 「音樂團體」, 『藝術年鑑(1947)』, 131쪽.

“原理를 把握”, “體系的 理論”, “眞摯한 研究”를 위해 연구부를 두어 ‘실기’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국악원은 인민의 음악으로 창극을 제시하며, 출범 이후 1946년 1월 창립 기념으로 ‘대춘향전’ 공연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청산(靑山)도 절노 사람도 절노’ 공연하였다.¹⁴⁾ 그리고 1947년에는 2월과 6월 2번의 ‘전국 창극제전’을 개최해, ‘대춘향전’과 대홍보전(奎篇) 그리고 ‘대심청전’을 선보였다.¹⁵⁾ ‘제2회 전국 창극제전’에서 선보인 ‘대심청전’은 미군정 문교부의 후원을 받아 공연되었는데, “小, 中學生들”에게도 관람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국악원의 창극 공연은 국악원이 창극을 인민의 음악, 나아가 민족 국극 즉, 민족, 나라의 극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창극은 “民族國劇樹立의 새 旗幟”이자 “우리 古典의 海外紹介版”으로 선전되고 이해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국악원은 창극 공연에서 연출과 장치 그리고 조명 등의 담당자를 연극 또는 무대 미술 전문가를 배치해 극적(劇的)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실제로 창극이 음악적 장르로서 강조되기 보다는 “民族의 魂을 持續”한 것으로서 “일반 共通 대중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거나, “장안의 인끼 독점” “일류명창들의 다각적 인기”, “관중의 박수 갈채”, “예정 기간을 연기하여 속연(續演) 해달라는 요청이 비뺄”진다는 표현에서 대중들의 소비를 반영한 인기 있는 오락·연예적 공연으로 이해되고 있었다.¹⁷⁾

창극 이외에도 국악원은 인민적 국악 건설을 위해 “農樂의 眞理를 樹立하고 [그것을] 發展 向上시키”기 위해 농악대회를 개최하였다.¹⁸⁾ 당시 농악은 고전민속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자 “민족 향기를 북돋아”준 것으로 이해·평가되었다.¹⁹⁾ 이는 해방 후 농악의 당대 지위와 위상, 나아가 농악에 대한 인식은 농악 경연대회의 실제 진행에서도 확인된다. 1946년 5월 개최된 ‘제1회 전국농악경연대회’는 미군정청 장관 대리 축사와 심사위원들이 음악, 무용, 민속학, 심지어 문학과 미술, 또 체육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이런 점에서 전통음악계 내에서 농악과 국악원의 지위와 위상을 확인해준다.²⁰⁾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 구성은 당대 농악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의 면면도 흥미롭다. 당시 농악의 인기를 반영해 농악 공연에는 관객 수만 명이

13) 함화진은 연출가 서항석을 국악원 이사로, 연극인이자 연출가인 현철, 또 유행가 작사가이자 연극인 임서방을 국악원 임원으로 영입하였다.

14) 「(광고) 第一回唱劇祭典」, 『서울신문』, 1946.10.6 ; 「(광고) 朝鮮義勇隊 同時上映 演 國劇社公演」, 『自由新聞』, 1946.10.7 ; 「(광고) 第一回唱劇祭典」, 『서울신문』, 1946.10.13.

15) 「國樂院主催로 「창극제」二月八日부터 開催」, 『日刊 藝術通信』 1947.1.28 ; 「(광고) 第一回唱劇祭典」, 『京鄉新聞』, 1947.2.4 ; 「(광고) 第一回唱劇祭典」, 『自由新聞』, 1947.2.9 ; 「今日『唱劇祭』開幕」, 『日刊 藝術通信』, 1947.2.10 ; 「(광고) 第一回唱劇祭典」, 『獨立新報』, 1947.2.12 ; 「(광고) 第一回唱劇祭典」, 『中外經濟新報』, 1947.2.13 ; 「(광고) 第二回唱劇祭典」, 『漢城日報』, 1947.6.8 ; 「(광고) 第二回全國唱劇祭」, 『文化日報』, 1947.6.7,10 ; 「(광고) 第二回 唱劇祭典」, 『民衆日報』, 1947.6.12.

16) ‘대춘향전과 대심청전’ 작품의 대본은 김아부, 연출은 각각 서항석과 이서향이, 장치는 각각 원우전과 김일영 담당하였다.

17) 「國樂院 一回公演 一日부터 開幕」, 『中央新聞』, 1946.1.10 ; 「『春香傳』人氣 飛騰-觀衆의 渴望으로 上演을 延期」, 『京鄉新聞』, 1947.2.14 ; 「唱劇祭典」, 『京鄉新聞』, 1947.2.18.

18) 함화진, 1948, 『朝鮮音樂通論』, 206쪽.

19) 「今四日로 最終幕」, 『京鄉新聞』, 1947.4.4.

20) 「農樂競演大會 審査委員 決定」, 『中央新聞』, 1946.4.29 ; 「全國農樂競演大會」, 『文化日報』, 1947.5.7 ; 「鄉土藝術의 精華 農樂競演大會開幕」, 『中央新聞』, 1946.5.11 ; 「第二回全國農樂祭」, 『家庭新聞』, 1947.5.13 ; 「全國農樂祭」, 『民衆日報』, 1947.5.21.

관람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회에는 챔페니 군정장관대리와 헤이모위츠(E. Haimowitz)음악과장, 레너드 버치(Leonard Bertsch)중위, 이훈구 농무부장, 최승만 교학과장, 안철영 예술과장 등 미군정 요인과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나아가 농악경연에는 미소위 대표들도 초대되었다.²¹⁾ 이것은 농악과 국악원이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대표적으로 소개될 만한 전통음악이자 단체 음악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미군정은 학무국의 음악 분야 담당 헤이모위츠 추천에 따라 국악원의 농악대회 예산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회 진행 관련 영상 기록도 남겼다.²²⁾ 이는 대회가 ‘조선의 전통을 보존·발굴’하고자 하는 미군정의 문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²³⁾ 또한, 그것은 국악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악원은 자신이 민족음악 건설의 주체임을 미군정으로부터도 인정받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악원은 사회·정치 단체와 연대한 행사에 출연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국악원은 당시 1946년 2월에 결성된 좌익블록(bloc)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하 민전)의 산하단체인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하 문련)에 가입하였다.²⁴⁾ 그리고 국악원은 문련이 주최한 3·1 기념식과 6·10만세 기념식 그리고 8·15 기념식에서 찬조 공연을 하였다.²⁵⁾ 해방 후 첫 ‘3·1 기념행사’에서, 국악원의 성악부와 정악부는 조선음악가협회와 조선음악가동맹 등과 함께 3월 3일 “삼일투쟁 발상지인 탑골공원”에서 음악 연주회를 가졌고, 저녁에는 노인을 위한 공연을, 6·10만세 기념 행사에서는 조선영화동맹과 예술통신사가 공동 주최로 개최한 공연에서 국창 공연을 담당하였다.²⁶⁾ 그리고 국악원은 1947년 1월 8일부터 6일간 문련 주최의 “조선예술가의 역사적 총동원”이라 광고되었던 ‘종합예술제’에 참가하였다.²⁷⁾ 국악원은 종합예술제에서 국악 연주와 조선음악동맹과 함께 합동 연주를 하였다.²⁸⁾ 국악원의 종합예술제 공연은 국악원이 1947년 초 정치적으로 좌익적 성향을 가지고

21) 「오늘 掉尾의 綜合大競演-民俗藝術農樂祭典의 興趣는 絶頂」, 『京鄉新聞』, 1947.4.1.

22) Armstrong, Charles K.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2, no.1, 2003, p.77.

23) 1947년에도 농악경연대회는 미군정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거족적 연중행사’로 진행되었다. 「全國農樂競演大會」, 『文化日報』, 1947.5.7 ; 「鄉土藝術의 精華 農樂競演大會開幕」, 『中央新聞』, 1946. 5.11 ; 「第二回全國農樂祭」, 『家庭新聞』, 1947.5.13 ; 「(광고) 第二回全國農樂競演大會」, 『現代日報』, 1947.5.22 ; 「(광고) 第二回全國農樂競演大會」, 『自由新聞』, 1947.5.22~25 ; 「(광고) 民族藝術의 最高峰 舉族的인 年中行事」, 『東亞日報』, 1947.5.23 ; 「(文化) 農樂競演大會」, 『獨立新報』, 1947.5.23 ; 「全國農樂競演大會」, 『京鄉新聞』, 1947.5.25 ; 「(광고) 第二回 全國農樂競演大會」, 『自由新聞』, 1947.5.27 ; 「(광고) 第二回 全國農樂競演大會」, 『婦人新報』, 1947.5.27.

24) 「文化團體總聯盟, 二十四日에 結成大會」, 『中央新聞』, 1946.2.21.

25) 「(광고) 六·十萬歲運動記念」, 『東亞日報』, 1946.6.2 ; 「(광고) 六·十萬歲運動記念」, 『自由新聞』, 1946.6.9 ; 「三一記念·藝術界行事-演劇·映畫·音樂等總動」, 『日刊 藝術通信』, 1947.2.25 ; 「(광고)三一運動記念野外音樂大演奏會」, 『中央新聞』, 1946.2.26~27 ; 「(광고) 三·一記念音樂舞踊唱劇大祭典」, 『自由新聞』, 1947.3.1 ; 「解放 記念文化展覽會」, 『獨立新報』, 1946.7.24 ; 「8·15記念 文化大展覽會」, 『朝鮮人民報』, 1946.8.10 ; 「(광고) 우리民族藝術大祭典」, 『東亞日報』, 1946.8.14 ; 「民全主催 記念行事-解放記念大會」, 『獨立新報』, 1946.8.14.

26) 「市民과 더불어 和唱, 塔골 公園에서의 野外 音樂大演奏」, 『中央新聞』, 1946.3.2 ; 「野外音樂大演奏, 오늘 正午탑골公園, 國樂院도 參加, 樂團總動員의 盛事」, 『中央新聞』, 1946.3.3 ; 「(광고) 3·1記念音樂舞踊唱劇大祭典」, 『漢城日報』, 1947.3.4.6.

27) 「綜合藝術祭 本社後援-映畫演劇音樂舞踊等 總動員」, 『獨立新報』, 1947.1.4 ; 김남천, 「綜合藝術祭를 앞두고」, 『獨立新報』, 1947.1.7 ; 「藝術史上初乳의 成事, 期待되는 綜合藝術祭」, 『獨立新報』, 1947.1.7.

28) 「『종합예술제』의 盛觀! 多彩한 『프로』에 觀衆도 感激」, 『日刊 藝術通信』, 1947.1.9. 이때 박은용과 윤기선 등의 서양음악 종사들과 함께, 가야금 산조의 명인인 박상근과 판소리 전공인 강장원이 출

있음을 보여준다.

국악원의 정치적 성향은 1946년 초 박헌영 관련 성명 서명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²⁹⁾ 국악원은 1946년 1월 5일 조선공산당 대표 박헌영이 내외기자단과의 회견에서의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조선학술원, 진단학회, 조선과학동맹, 조선음악동맹, 조선연극동맹, 조선영화동맹, 조선문학동맹 등과 함께 박헌영의 설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 성명서에 서명을 하였다. 또 국악원장 함화진은 1946년 4월 15일 학계 권위를 총망라하여 개최된 민족문화건설 전국회의에서 임화, 안기영, 김남천 등과 함께 발제로 참여하였고, 1947년 2월 13일에 개최된 남조선문화단체예술가 총궐기대회에서 전통 예술 분야의 보고자로 참가하였다.³⁰⁾ 또 그는 1947년 6월 미·소공위 재개를 축하하며, 좌익적 성향을 가진 『문화일보』에 글을 투고했다.³¹⁾ 이러한 것들은 국악원과 함화진의 좌익적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악원의 좌익적 성향은 미군정이 국악원을 좌익 성향의 단체로 간주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정판사위조지폐사건’과 9월 총파업을 계기로 좌익 성향의 단체에 대한 탄압과 박헌영 등 좌익 핵심 인물의 검거에 착수하였다. 즉 1947년 9월 미군정은 민전과 인민당, 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각각의 중앙위 사무소를 폐쇄하고, 민전 산하 문화예술 단체 등을 불법화하고, 1,0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때 미군정이 국악원을 좌익 성향의 단체로 간주하고 탄압했다. 이에 국악원장 함화진은 1947년 5월 성명서를 통해 국악원이 “정치적 색채”가 없는 ‘순수 음악 단체’라고 설명하고 자신의 활동이 ‘민족문화를 빛내는 순수 문화 활동’이었음을 강조하였다.³²⁾ 이와 같은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8월 국악원은 미군정에 의해 좌익적 성향을 가진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국악원장 함화진과 남로당원 정남희 등 국악원 집행위원들이 피검되고 함화진은 미군정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화진이 국악원장을 사퇴하며 미군정의 국악원 탄압에 대한 사태는 ‘수습’되었다.

3. 박헌봉 원장기(1947. 9~1948. 8) 국악원 재편과 정치성 변화

함화진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박헌봉이 이사장 겸 국악원장으로 취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이 영입되면서, 국악원 조직은 재편되었다. 즉, 기존 사업국은 총무국으로 개칭되고 재정부와 지방부가 폐지되었다. 또한, 창악부·민요부·기악부·무용부·국극부·연구부·선전부가 공연국 산하에 배치되는 한편, 아악부와 정악부 그리고 속곡부 등 3개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악원 조직은 새로이 총무국, 공연국, 문예국 등 3국과 총무국 산하의 서무부와 기획부, 연구부 등의 9부, 그리고 산하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이전에 ‘3개국 12부와 4개의 위

연해 국악을 공연했다.

29) 「朴氏問題에 兩氏모다 否認」, 『中央新聞』, 1946.1.23.

30) 「民族文化建設全國會議」, 『自由新聞』, 1946.4.9 ; 「文化를 擁護하 藝術家總蹶起大會」, 『自由新聞』, 1947.2.14.

31) 「民主建國의 殿堂에서 文化人은 웨친다- 成功을 確信, 國樂院 咸和鎮」, 『文化日報』, 1947.6.26.

32) 「聲明書」, 『京鄉新聞』, 1947.5.14.

원회 그리고 1개의 직속단체'로 이루어졌던 것보다는 축소된 것이었다.

이러한 속에서 국악원은 민속악 중심의 단체로 변화된다. 조직 개편에서 아악부와 정악부 폐지는 아악부와 경쟁하기 보다 민속악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또한 합화진 원장기에 설치했던 국악학교와 극장건립, 학술지 발간, 문헌·악기 수집 관련 4개의 위원회를 폐지해, 박헌봉 원장기의 국악원은 교육·연구 활동보다는 공연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을 보여준다.³⁴⁾ 이와 같이 재편된 국악원은 교육·연구 사업이라는 외연 확장 활동보다는 공연 활동에 치중하고자 하였다.

국악원의 변화는 조직적 측면에서도 감지되는데,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이사회의 조직이다. 국악원의 주요 활동들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부의 폐지 역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과의 연계 관계 약화를 낳아 중앙의 지방 조직 장악력의 약화를 낳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 조직의 자치 활동 강화를 낳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악원 경북 지부 사례는 시사적이다. 경북 지부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특히 1947년 10월 「제3회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통해서 국악원의 개편으로 중앙 본부와는 별개로 지부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⁵⁾ 박헌봉 원장 중심으로 국악원이 개편된 이후 경북지부가 개최한 전국농악경연대회에 국악원 임원들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서울 국악원 본부는 더 이상 농악 관련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악원 개편 이후 공연 장르 역시 변화되어 농악 관련 활동은 약화되었고, 창극에 보다 집중하였다. 이는 국악원이 지향하는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또 한편으로 인민의 음악으로 만들고자 했던 농악 관련 활동이 약화되었다. 국악원은 1948년도부터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국악의 장르에서 농악이 배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산하단체 확장은 재정 확보와 영향력 확대, 또 전통음악 보급에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악원의 향후 변화를 암시하는 조치들이 취해진다. 조직 변화와 함께 임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남희가 국극사 위원에서 기악부장으로 강등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남희는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합화진과 함께 미군정에서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국악원 창극 공연에서 음악 편곡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다. 때문에 정남희를 임원 구성에서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 행정가로 알려진 정기중이 합화진 원장기서 활동하지 않았다가 서무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이다. 또 신임 연구부장으로 고려음악협회 창립위원인 서양음악 종사자 채동선이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국악원이 서양음악을 모델로 하여, 전통음악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박헌봉 원장기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정체성 변화는 11월 우익적 성향이 강한 단체들과 함께 했던 무대예술원 결성에서 나타났다.³⁶⁾ 무대예술원은 “조선무대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분산된 “예술인을 총망라”하

33) 이는 국악원과 아악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34) 그런데 1947. 12. 이후 국악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국악 전문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 『文化手帖』, 『京郷新聞』, 1947. 12. 7.

35) 「道民이 바치는 神農에의 饌物 豊年祭農樂大會開催 서울外各道代表參加受諾」, 『嶺南日報』, 1947. 9.9 ; 「(광고) 第三回全國農樂競演大會」, 『嶺南日報』, 1947.9.15,20,25. 미군정의 기록에 따르면, 국악원이 당시 3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지부들의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 지부 활동은 지방 조직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라 의미가 있다.

여 가극협회, 연극협회, 국악원, 고려음악협회 등이 결성한 단체이다. 그 단체는 삼일절 등 국가 기념 행사에 참여해 특별 공연 하고, 단독 정부를 위한 5·10선거 홍보 등을 수행하였다. 이때 국악원 역시 공보처의 선거 비용 금을 지원 받고 “총선거 정신 계몽”을 위한 문화 계몽대에 동참하며 남한 일대를 순회하며 선전하였다.³⁷⁾ 이후 국악원은 ‘선거 선전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민족적 사회적 사명을 완수”한 무대예술원의 산하단체로서 공보처에서 각각 감사패와 표창을 받았다.³⁸⁾ 함화진 원장기에 문련 공연 행사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1947년 9월 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에서 주최한 ‘제1회 예술제전’에 참여하였다.³⁹⁾ 이와 같이 새로운 국악원은 활동 방향을 변화시켜 자신이 이전 국악원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악원의 정치적 성격 변화는 국가적 행사 또는 공공 행사 관련 활동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국악원은 1947년 12월 서울 시공관이 개관될 때 고려교향악단과 함께 찬조 공연을, 또 1948년 1월 런던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후원하기 위해 ‘대춘향전’을 공연해 그 수입금을 올림픽 선수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⁴⁰⁾ 뿐만 아니라 국악원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구제 활동’을 위한 공연도 하였다. 예컨대, 1948년 3월 전재민특별구제회가 『경향신문』의 후원을 받아 ‘전국민예대회(*전국민속예술대회)’를 개최했을 때, 국악원의 직속단체인 국극사가 참여하였다. 그 공연은 ‘농악과 국악(창극, 민요), 줄타기’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농악과 창극 ‘춘향전’과 남도·서도 가요, 배뱅이굿, 줄타기 경연이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대회에는 전국 각 지방의 농악대와 남녀 명창, 또 명기(名妓) 등 사백여명과 함께 참여했다.⁴¹⁾ 국악원의 공연은 “고전민속 예술의 극치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관객들에의 “민족혼을 근저로부터 흔드리 놓”은 것으로 평가되었다.⁴²⁾ 이는 국악원의 민예대회가 ‘고전민속예술’과 ‘민족’·‘민족혼’의 관점에서 접근·평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민예대회는 ‘구호’의 성격과 함께 5·10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것이기도 했다. 당시 선전물은 민예대회를 정치 상황과 연결시켜 “總選舉에 의한” “大望의 政府樹立을 앞두고” “民族精神을 最高度로 昂揚”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⁴³⁾ 민속예술 대회는 한편으로는 ‘전재민 구제’를 위한 ‘시민 위안 공연’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남한 단독정

36) 「藝術人總網羅 舞臺藝術院創立」, 『京鄉新聞』, 1947.11.19.

37) 「文化啓蒙隊 出發앞두고 歡送會」, 『東亞日報』, 1948.4.6 ; 「總選舉宣傳에 舞臺藝術院團體出動, 朝鮮新聞記者協會等後援」, 『婦人新報』, 1948.3.25 ; 「選舉啓蒙위해 興行團體動員」, 『中央新聞』, 1948.3.25 ; 「舞臺藝術院에서 總選舉啓蒙巡廻」, 『功業新聞』, 1948. 3.26.

38) 「選舉宣傳의 貢獻至大 舞臺藝術院에 感謝狀」, 『민중일보』, 1948.5.19 ; 「手苦 많았소 舞臺藝術院에 感狀」, 『京鄉新聞』, 1948.5.19 ; 「總選舉推進한 藝術團體表彰」, 『東亞日報』, 1948.5.9.

39) 「文化團體總聯合會主催 第一回藝術祭典」, 『東亞日報』, 1947.9.17.

40) 「丹粧도 새로운 市公館 30日開館式을 舉行」, 『中央新聞』, 1947.12.27 ; 「丹粧한 市公館 盛大히 開館式」, 『京鄉新聞』, 1947.12.31 ; 「(광고) 戊子新春, 國樂院」, 『民衆日報』, 1948.1.10 ; 「올림픽出戰後援, 國樂「春香傳」公演」, 『自由新聞』, 1948.1.12 ; 「(광고) 春香傳公演」, 『東亞日報』, 1948.1.13.

41) 「戰災民救濟 民俗藝術大會」, 『東亞日報』, 1948.3.21 ; 「民俗朝鮮의 대 “페-젠트」, 『京鄉新聞』, 1948.3.24 ; 「民俗藝術大會開催」, 『獨立新報』, 1948.3.27 ; 「民俗藝術大會, 開幕切迫」, 『大韓日報』, 1948.3.30 ; 「民俗藝術大會」, 『朝鮮中央日報』, 1948.4.3 ; 「古藝術의 萬華鏡 全國民藝大會四日부터」, 『京鄉新聞』, 1948.4.1 ; 「全國民藝大會今日開幕」, 『京鄉新聞』, 1948.4.3 ; 「民俗藝術大會, 末日부터 昌慶苑서」, 『新民日報』, 1948.3.27 ; 「(광고) 全國民藝大會」, 『現代日報』, 1948.3.30~31.

42) 「娘子農樂大妙技에 燦幕」, 『京鄉新聞』, 1948.4.6.

43) 「古藝術의 萬華鏡 全國民藝大會四日부터」, 『京鄉新聞』, 1948.4.1.

부 수립을 지지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성격을 띤 국악원의 공공 행사는 국악원의 우익적 정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악원의 정치적 성향 변화는 행사에서 강조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성향 변화의 강조는 예컨대, 국악원이 그 산하 단체였던 국극협단의 1948년 창립 기념에서 보여진다. 국극협단은 문교부 예술과의 후원을 얻어 식민지 시기 김아부가 각색해서 동일창극단에서 공연한 ‘일목장군’(一目將軍)을 ‘고구려의 혼’으로 개칭해 1948년 5월 일주일 동안 시공관에서 공연하였다.⁴⁴⁾ 창극 ‘고구려의 혼’은 매체 광고마다 “純民族오페라”로 강조되고 창극이란 용어 대신 국극으로 표현되었다.⁴⁵⁾ 이 공연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악원이 ‘고구려의 혼’을 통해 “아프로[*앞으로] 새로운 이념으로 건전한 활동”을 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이는 당시 국악원이 좌익적 성향을 가진 조직으로 인식된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자신의 변화를 내외에 알리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악원의 활동은 단체의 외연 확장보다는 공연 활동에, 그것도 서울 지역에서의 공연 활동에 치중하였다. 공연 레파토리에 있어서도 국극 내지 창극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극의 속재 역시 제한적이어서, 주로 ‘고전 작품’에서 보이는 사랑과 효도 등을 극의 소재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극 또는 창극 공연이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소비가 일정 정도 확보되어 있어 흥행이 보장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국악원이 해방 직후와는 달리 변화가 초래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연의 흥행 성공을 통한 국악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보다 주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안정적 운영 위주의 국악원 활동은 변화가 낳은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1948. 9~1950. 6) 국악원의 국가적 활동

박헌봉 원장기의 국악원은 정부 수립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 주최·주관의 행사에 참여해 주악과 창극, 무용 등을 공연하였다. 국악원은 미의회 의원 등의 방한 환영 행사 등에서 ‘한·미 친선을 도모’하는 활동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교육기관 등의 후원을 얻어 공연하였다. 예컨대, 국악원은 1948년 10월 대한교육연합회 주최의 ‘미국교육사절단 환영 연예회(演藝會)’에서 미국사절단을 ‘환영·위로’하고 ‘한미국제 친선’에 ‘이바지’하였다.⁴⁷⁾ 또 국악원은 1949년 9월 국회 주관의 미국의회의원 ‘환영 티파티’에서도 공연하였다.⁴⁸⁾ 국악원은 당시 노동단체로서 대한민국의 4대 기관 단체의 하나

44) 「國樂院의 새企劃 高麗의 魂上演」, 『現代日報』, 1948.5.21 ; 「(광고) 國劇協團創立記念大公演」, 『東亞日報』, 1948.5.20 ; 「演藝」, 『自由新聞』, 1948.5.22 ; 「(광고) 高句麗의 魂」, 『婦人新報』, 1948.5. 22~23 ; 「高句麗의 魂」 공연」, 『京鄉新聞』, 1948.5.22 ; 「(광고) 高句麗의 魂」, 『民衆日報』, 1948.5.23, 25 ; 「(광고) 高句麗의 魂」, 『朝鮮中央日報』, 1948.5.23 ; 「(文化消息) "高句麗의 魂", 廿三日부터 上演」, 『民衆日報』, 1948.5.27 ; 「文化消息」, 『東亞日報』, 1948.5.26.

45) 「(광고) 高句麗의 魂」, 『婦人新報』, 1948.5.23 ; 「(광고) 高句麗의 魂」, 『民衆日報』, 1948.5.23.

46) 「(文化消息) "高句麗의 魂", 廿三日부터 上演」, 『民衆日報』, 1948.5.27.

47) 「學徒舞踊과 奏樂으로 美國教育使節團慰勞十六日市公館서」, 『東亞日報』, 1948.10.15 ; 「美國教育使節團 歡迎演藝會盛況」, 『京鄉新聞』 1948.10.19.

였던 대한노동총연맹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하였다.⁴⁹⁾ 이는 정부 수립 이후 국악원이 자신의 공연을 통해 국가·지역 기관과 함께 국가·사회적 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국악원이 미국 교육 관계와 정치인 대상의 공연 찬조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행사 주최 측이 국악원의 공연 종목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줄 만한 한국의 고유한 ‘민족음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회의장 신익희는 미의원 환영 행사에서 국악원의 공연음악을 “우리민족 예술인 國樂”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국악원의 전통음악은 당시 ‘민족예술’인 ‘국악’으로 인식되고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소개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악원은 정부 수립 직후 이루어진 국악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배제되었다. 이것은 국악이 아악부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것에서 나타난다. 아악부는 식민지 시기 일본 궁내성 소속의 조선총독부의 일(一)음악 기관으로 궁중음악을 담당하였다. 해방 후 아악부는 이왕직아악부의 직제 개편으로 구왕궁아악부로 바뀌어 운영되었고, 우익적 정치 성향의 의미를 가진 공연 활동과 함께 각종 국가 및 공공 행사에서 찬조 공연을 하였다. 정부 수립 후 아악부는 1948년 11월 ‘아악부 국영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48년 12월 국영화되었다. 그 결과 아악부와 아악 중심으로 국악과 그 주체가 제도화되었던 반면에 국악원은 배제되어 국악원이라는 자신의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⁵⁰⁾

국악의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악원은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국악원 산하단체 여성국극동지사의 1949년 11월부터 4개월간의 ‘황금돼지’ 공연은 흥미롭다. 그 내용은 고대를 배경으로 결혼을 통해 상실한 영토를 되찾는 전쟁을 극화하면서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초기 대한민국 정부가 소련과 그것의 괴뢰를 몰아내고 ‘실지회복’ 즉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것’을 주장했던 정치적 의제와 연관해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유의할 때, ‘황금돼지’가 고대를 배경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을 극화한 작품이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쟁 속에서 주장했던 ‘실지회복’을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 정치적 맥락이자 의미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극은 초기 대한민국의 국가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악원은 대한민국의 공연계 재편 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1950년 초 정부는 ‘국악 무대 예술의 건전한 발전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국악 무대예술가 자격 심사’를 실시했다. 무대예술원의 소속 단체인 국악원은 ‘1월 26일부터 한 달 정도 각 단체의 단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심사를 받으라’고 신문을 통해 공지하였고 ‘심사과목’으로 ‘창악과 민요, 기악, 무용, 연기, 학술, 구술’을 제시하였다.⁵¹⁾ 국악원은 자격 심사 후 ‘기술증’을 배부하였다.

이러한 ‘자격 심사’는 여러 면에서 주목된다. 먼저 ‘시험 과목’에서 보이듯 전통음악이 장르상으로 ‘창악, 민요, 기악, 무용’으로 구분되고, 국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48) 「美議員의 歡迎分列式 要人參席理」, 『京鄉新聞』, 1949.9.10.

49) 「自由勞動聯盟加盟紀念公演」, 『京鄉新聞』, 1950.1.27. ; 「大韓勞總紀念公演」, 『朝鮮日報』, 1950.1. 29.

50) 최혜진, 2019, 앞의 글, 154~159쪽.

51) 「舞臺藝術家資格審査施行」, 『東亞日報』, 1950.1.11 ; 「舞臺藝術家資格審査」, 『京鄉新聞』, 1950.1.13 ; 「(광고) 國樂舞臺藝術家資格審査」, 『부인신문』, 1950.2.2~5, 7~10, 17 ; 「(광고) 國樂舞臺藝術家資格審査」, 『東亞日報』, 1950.2.11 ; 「(광고) 國樂舞臺藝術家資格審査」, 『서울신문』, 1950.2.15.

으로 기술증 배부에서 보이듯 당시 전통음악 종사들은 예술가가 아닌 기술 재능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구술’ 심사이다. 구술 심사에서 공보처와 국방부, 시청, 경찰국, 무대예술원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분담 질문하였다. 검사들은 구술 검사 문제로 “선전계몽에 대한 무대예술인으로서의 각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현국정세를 논함”, “유엔은 무엇이나, 대한민국의 사대절(四大節)[(國慶日)], 우리나라의 국호, 일민주의(一民主義), 민주주의” 등을 질문하였다.⁵²⁾ 이와 같은 질문은 대한민국이 ‘자격 심사’를 실시한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보여준다. 그 질문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를 묻는 것이고, 또 ‘당시 국제·국내적 정치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대에서 선전·계몽 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격 검사의 실제 내용은 정치적 목적이었다. 이처럼, 국악원은 ‘무대 심사 권한’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전통음악계 내부에서 스스로를 권력화하며 자신의 국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

나아가, 국악원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대(對)게릴라 선전 활동에 직접 참가하였다. 예컨대 국악원은 준국가 조직인 보도연맹이 1950년 3월 실시한 ‘타공(打共) 강조 주간’ 행사의 하나로 개최한 공연에 참가하여 공연하였다.⁵³⁾ 그 행사는 ‘타공’이라는 표현에서처럼, ‘공산주의 타도’를 위한 정치적 행사였다. 이러한 행사에의 국악원 참여는 국악원이 정치적 전통음악 단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⁵⁴⁾

대한민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국악원은 서울시 등으로부터 부민관이나 국립극장의 사용에 있어 우선적 대우를 받았다. 즉 국악원은 정부 수립 후 일반인에게 개방된 부민관에서 첫 공연 단체로서 공연을 하였다.⁵⁵⁾ 또한, 많은 공연 단체들이 있었음에도 1950년 새로 설립된 국립극장에서 국악원은 극단 실험의 ‘원술랑’ 공연에 이어 두 번째로 자신의 창극 ‘만리장성’을 공연하였다.⁵⁶⁾ 이는 당시 국악원의 국가·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자 제고된 위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비록 국악의 국가적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국악원의 음악은 국가·사회적으로, ‘국악’으로, ‘민족음악’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악원은 전통음악계의 대표적 조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조직된 국악원은 1947년 정치적 지형에 따라 정치성이 변화하였다. 해방 직후 함화진 원장기의 국악원은 좌익적 성향을 가진 조선문화단체총연

52) 「가슴조리는俳優 어제 資格審査를 開始」, 『東亞日報』, 1950.2.7 ; 「演劇안되는 試驗」, 『서울신문』, 1950.2.7.

53) 「打共強調週間」, 『朝鮮日報』 1950.3.30 ; 「打共即民國興隆」, 『京鄉新聞』 1950.3.30.

54)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국악원의 행사 참여가 동원된 것만이 아니라, 국악원이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원’이 실제에서는 동원 대상의 ‘참여’와 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참여 또한 동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처럼 ‘동원’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55) 「府民館臨時開放」, 『東亞日報』, 1949.7.26.

56) 「(광고) 次週豫告 國劇社 萬里長城」, 『朝鮮日報』, 1950.4.30~31.

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에 가입한 산하단체로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1947년 7월 미군정의 탄압을 받고 국악원은 원장이 박헌봉으로 교체되는 등 조직이 개편되고 그 성격 또한 변화하였다. 박헌봉 원장기의 국악원은 인적 구성의 변화와 함께 전체 조직을 축소하고, 창극 공연에 집중하였다. 조직을 축소하며 외연 확장보다는, 자신들의 중심 활동 방향을 공연 활동에 치중하였다. 이는 국악원의 입지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악원은 미군정의 통제 속에서 공연 활동 등을 통해 미군정 및 우익 정치·사회 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였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국악원은 우익적 성향이 강한 단체들과 무대예술원을 결성하였다. 또한, 국악원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예술제전에 참가하는 한편 국가가 주도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적 제도화에서는 배제되었다. 대한민국은 국악을 아악 중심의 음악으로 제도화하였다. 즉, 아악부는 1948년 12월 국영화되었고, 1950년 1월 국립국악원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해방 공간에서 상호 경쟁하던 전통음악들이 국가화된 아악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해방 직후 인민 대중 중심의 국악 논의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배제된 국악원은 ‘국민보도연맹’ 등의 정치 단체에서 공연하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적 전통음악 단체가 되었다. 그 결과 국악원은 한국 전쟁 직전 ‘무대심사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전통음악계 내부에서 스스로를 권력화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적 성격 변화를 보여준 국악원의 해방 직후 역사는 해방 직후 한국 현대사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혜진, 「해방 직후(1945.8~1950.6), 국악원의 정치성 변화」에 관한 토론문

이수정(한국학중앙연구원)

최혜진 선생님의 발표문은 잘 읽었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음악 단체가 활동하였지만, 이 합집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정된 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발표자께서 주목한 국악원의 정치성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시도로 여겨져 흥미로웠습니다. 토론을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문은 국악원의 정치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악원이 5년의 시간동안 겪었던 변화과정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좌익에서 우익으로 성향이 바뀌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발표자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국악원은 어떤 음악 단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악원은 해방직후 궁중음악에서 민간음악까지 전 분야를 망라한 구성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방대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50여명으로 유지되었던 구왕궁악부에 국악계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주고 말았습니다. 그간 궁중음악을 제외한 전통음악계는 주류 음악계에 단 한번도 진입하지 못하였고, 하나의 음악교육기관조차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국악원에 와서야 전 분야의 음악인들이 처음 뭉쳤다는 점에서 보면 역사적 패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국악원에 모인 것은 민간음악에 배타적인 아악부 쪽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국악원의 좌절과 실패는 국악계를 반쪽으로 성장하게 하였고,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국악원에 모인 이들은 음악적 봉건주의 잔재와 식민지적 사고를 벗어나고자 새시대의 새로운 음악, 신악과 민족음악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이 꿈꾸었던 음악적 담론에 담긴 역사성과 시기적 적절성 같은 가치가 정치 논리에 피해당한 상황을 국악원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처음 맞이하는 음악계의 정치적 피해와 관련한 재평가와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발표문은 국악원 원장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되는 시기 구분이지만, 인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악원 초대 원장이었던 함화진(1884-1949)과 관련한 의문이 많습니다. 함화진은 국악원이 좌익으로 물리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던 인사와 함께 검거되며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함화진의 이전 이력을 보면, 16살에 장례원 가전악으로 음악을 시작한 이래 1939

년 이왕직아악부를 떠날 때까지 40여년간 ‘궁중음악계’에 몸담았습니다. 또 1937년 친일단체인 조선문예회 위원, 1941년 조선총독부 관련 조선음악협회에서 이사와 조선음악부 부장을 지낸 친일이력도 있습니다. 이런 함화진이지만 그가 있었기 때문에 국악원의 조직에 ‘아악부’ 등 6개 부서가 꾸려졌습니다. 국악원에서는 창립공연에 아악과 창악을 종합한 춘향전으로 기획하고 이왕직아악부 출신 장인식이 아악지도를 담당하는 등 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천시받았던 농악을 무대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함화진의 단체장으로서 행적이 좌익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을 특정하여 평가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국악원 약 2년간의 활동으로 ‘좌익’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음악계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저서와 글을 남기고 40년을 궁중음악가로 활동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없고, 친일행적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대 국악원장 박헌봉은 함화진과 같이 활동을 했음에도 살아남아 국악원을 운영하였습니다.

3. 4장에서 ‘아악부는 식민지시기 일본 궁내성 소속의 조선총독부의 일 음악기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악부가 일본 궁내성 소속이지만 경성의 이왕직이 일본에서 멀어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이왕직아악부를 조선총독부의 각종 행사에 동원하거나, 조선신궁에 동원하였습디만, 조선총독부의 음악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황실과 내각, 조선총독부, 신토는 상호 협조하였으나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4장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악원은 1948년 8월 단체명을 대한국악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북소·북중관계와 ‘혁명전통’의 변화

문미라(역사문제연구소)

1. 머리말
2. 소련과의 대립과 소련 지우기
3.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중(對中) 사상투쟁
4. 맺음말

1. 머리말

북한의 1960년대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로 시작되었다. 1956년 8월전원회의사건과 뒤이은 ‘반종파투쟁’으로 연안파와 소련파 등 반김일성 세력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한 북한은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4차 당대회를 열고 당의 권력구조와 세력관계를 재편하였다. 제4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을 함께 한 인물들이 대거 당의 핵심부로 부상하였다.¹⁾ 당대회 마지막 날인 9월 18일 개정된 당규약은 전문(前文)에 “조선로동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명시하였다.²⁾ 북한사회에서 항일무장투쟁이라는 ‘혁명전통’의 계승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북한에서는 1967년까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전통’이 점차 그 내용을 풍부히 하면서 북한사회의 절대적인 규정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 연구는 1950~60년대 북한이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혁명전통’을 절대화하는 양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³⁾ 그러나 기존 연구는 북한이 신격화된 ‘혁명전통’을 바탕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그 ‘혁명전통’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밝히는 데 소홀하였다. 김일성의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전통’으로 삼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나 항일무장투쟁 중에서도 무엇이 강조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

1) 제4차 당대회에서의 당내 세력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은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795~797쪽 참조.

2)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會 編, 1972,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 別卷 北韓篇』, 東亞日報社, 37쪽. 제4차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당규약 개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혁명전통’ 공식화 배경 등에 대해서는 류승주, 2022, 『북한의 민족문화전통과 항일혁명전통 수립(1945~1967)』,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3~210쪽 참조.

3) 와다 하루키 지음, 이종석 옮김, 1992,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 비평사 ;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중앙일보사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2000a,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은 무엇인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이 ‘혁명전통’의 강조점과 내용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해명되지 않았다.

1960년대 북한은 중소분쟁의 여파로 사회주의 강대국 소련·중국과 차례로 갈등을 겪으며 대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반면 남한은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등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다. 선행연구는 이 같은 배경 속에 북한이 정치·경제·외교·사상의 측면에서 자주노선을 전면화하는 모습을 밀도 있게 분석하였지만,⁴⁾ 이것이 ‘혁명전통’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특히 1960년대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로 ‘혁명전통’에서도 자주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곧 주체사상의 연원을 항일무장투쟁 시기로 소급하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은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로동신문』, 『근로자』, 『력사과학』 등에 게재된 ‘혁명전통’ 관련 기사·논설을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1960년대 북소·북중관계의 변화 및 이와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등에 대해서는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에 소장되어 있는 구소련·동유럽 각국의 외교문서,⁵⁾ 독립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구동독 자료,⁶⁾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소장 자료를⁷⁾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2. 소련과의 대립과 소련 지우기

소련과 중국의 갈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소련이 평화공존론을 주장하고

4) 鄭鎮渭, 1985, 『北方三角關係』, 법문사 ; 이종석, 2000b,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 박종철, 2009, 「1960년대 중반의 북한과 중국: 긴장된 동맹」 『한국사회』 10-2 ; 2011, 「중소분쟁과 북중관계(1961~1964년)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9-2 ; 허라이와 순지 지음, 이종국 옮김, 2013, 『북한·중국관계 60년 :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선인 ; 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 김보미, 2019, 『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 서강대학교 출판부.

5) 우드로윌슨센터 문서들은 선전적 성격이 강한 북한문헌의 한계를 보완하여 북한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지만,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북한 내부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과 번역의 부정확성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김보미, 2014,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54-3, 215~216쪽 ; 조수룡, 2018,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7~18쪽 ; 김도민, 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4쪽.

6) 통일연구원은 독립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중 기밀 해제된 문서 일부를 번역하여 자료집으로 출판하였다. 통일연구원 편, 2006,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 선인.

7) 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편, 2020,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 선인. 여기에 수록된 자료들은 사료군(фонд) 495, 사료계열(опись) 228에 해당하는 ‘조선공산당 인사 파일’이며 2019년부터 독립기념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집되었다.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1959년 발생한 중국과 인도의 무력 충돌 사태에서 소련이 인도를 두둔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자 양국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⁸⁾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로,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몰아세웠다.

중소분쟁은 북한의 대외정책과 자주노선 천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북한이 중소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종래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던 것과 달리 소련과 거리를 두고 중국의 편에 분명히 서기 시작하였다. 동독 외교부 북한 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1962년이 경과하면서 조선노동당은 점점 더 중도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더욱 공공연하게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음을 포착하였다.⁹⁾ 김일성은 소련의 개인숭배 비판에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련의 평화공존론 역시 치열한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북한의 외교정책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은 북한이 중국-인도의 국경분쟁, 쿠바사태를 직시하며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평화공존을 관철하겠다는 소련의 희망이 그릇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현재의 동맹관계에 대한 소련의 신의를 전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방위를 자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보았다.¹⁰⁾ 특히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에 미국이 강력히 대항하여 결국 미사일을 철수한 쿠바사태가 일어나자, 북한은 소련의 태도를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양보한 것”으로 비난하며 소련을 책망하였다.¹¹⁾

소련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비판은 1963~1964년에 집중되었다. 비판의 초점은 소련공산당의 수정주의적 경향과 분열주의적 행동, 내정간섭과 대국주의적 태도 등이었다.¹²⁾ 1963년 9월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부수립 15주년 기념대회에서,¹³⁾ 북한은 축하를 위해 참석한 소련의 우호단체 사절단을 격리시켰을 뿐 아니라 박물관을 방문한 각국의 사절단들 면전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핵전쟁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산속에 안전한 방공호가 있다”고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하였다.¹⁴⁾

소련도 가만있지 않았다.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징계’는 주로 경제적 제재였다. 1962년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원조를 잠정적으로 유보하였고, 1963년에 들어 북소관계는 무역

8) 이종석, 2000b, 앞 책, 215~226쪽.

9) 「중국공산당이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1963년 4월 8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58쪽.

10) 「북한 인민군 당위원회 제5차 확대 전원회의 평가서」(1963년 1월 28일), 앞 책, 43쪽.

11)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정보」(1963년 6월 20일), 앞 책, 102쪽.

12)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근로자』 21, 1963년 11월, 2~30쪽 ;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분열하려는 책동을 저지시키자」, 『로동신문』 1964년 4월 19일 ; 「분열을 가져올 각국 당들의 회의는 저지시켜야 한다」, 『로동신문』 1964년 8월 31일 등.

13) 기념대회 개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5주년 평양시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1963년 9월 9일, 기념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은 김일성, 19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연에서 한 김일성동지의 연설」 『조선중앙연감(1964년)』,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7~8쪽 참조.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교조주의에 대한 언급 없이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더욱 굳건히 투쟁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15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1963년 9월 17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105쪽.

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였다.¹⁵⁾ 1964년에는 무역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련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상당히 축소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계속 압박하였다.¹⁶⁾ 북한은 이에 대해 “《진정한 협조》와 《사심 없는 원조》를 말로는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¹⁷⁾

사회주의 모국(母國)이자 과거에는 “따라 배워야 할” 존재였던 소련이 이제는 비판해야 할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숨김없이 전해졌다. 일례로 1964년 당시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에서는 수많은 집회가 열렸고 집회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마다 2회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때 10문제에 대해 필기로 답변해야 했는데 “무엇보다도 소련의 역할, 현대 수정주의 등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것이다.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은 북한의 언론에서는 현대 수정주의에 대해 언급되는 것이 비교적 많지 않음에도 집회와 교육에서는 “노골적으로 소련과 현대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¹⁸⁾

이 시기 경직된 북소관계의 영향은 북한과 소련의 역사학계로까지 번졌다.¹⁹⁾ 김석형, 김희일, 손영종 등 북한의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 3명이 소련과학원에서 1955년부터 발간한 『전세계사』의 조선 관련 서술을 문제 삼는 글을 『력사과학』에 게재한 것이다.²⁰⁾ 비판의 대상은 기사동래설(箕子東來說)과 임나일본부설을 비롯한 고대사부터 삼국의 건국 시기, 갑신정변과 1920~30년대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까지 광범위하였다.²¹⁾ 이 글은 1963년 9월 20일자 『로동신문』과 『근로자』 1963년 18호에도 중복으로 게재되었다. 그만큼 해당 내용을 널리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²²⁾

기존 연구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는 ‘혁명전통’과 관련한 많은 문제도 지적되었다. 3인의 역사학자들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창건, 조국광복회 결성,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전투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전세계사』가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계사』가 “봉건왕조나 부르주아지와 관련된 시기의 역사는 서술”하면서 “조선 인민의 혁명운동사상 가장 높은 발전 단계를 의미하였으며 (중략) 8·15 해방 후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거대한 의미를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령도한 인민운동의 역사”는 무시해버렸다는

15) 박종철, 2011, 앞의 글, 65쪽.

16) Baláz Szalontai, 2005,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 Press, pp. 202~205.

17) 「아세아 경제토론회 평양선언 :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18) 「북한의 경제, 사회에 대한 정보보고」(1964년 10월 19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136~137쪽.

19) 이 내용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최초로 이를 분석한 연구자는 서대숙이다.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연구소, 157~160쪽.

20) 김석형·김희일·손영종, 「《전세계사》(소련과학원 편) 조선 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력사과학』 5, 1963년 10월, 5~26쪽. 이보다 앞선 1961년에도 김석형과 김희일이 『력사과학』을 통해 소련 역사학을 비판하였다. 홍종욱, 2020,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77-3, 50쪽.

21) 히라이와 순지는 북한의 『전세계사』 비판이 표면적으로는 소련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수, 당 등 중국의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주로 문제 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교묘히 중국의 대국주의적 자세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히라이와 순지 지음, 2013, 앞 책, 133~138쪽.

22) 이준성, 2020, 「1950~60년대 『조선통사(상)』 간행과 북·소 역사학계 갈등」 『사학연구』 137, 34~35쪽.

것이다. 이상의 서술은 당시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사 인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

사실 널리 알려진 대로 김일성은 1940년 10월 이후 소련 영토로 넘어가 소련군 제88독립보병여단(이하 88여단) 소속으로 해방을 맞았고, 그의 항일무장투쟁은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의 영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련을 상대로 이 같은 비판을 가했다는 것은 소련으로부터 자신들만의 ‘혁명전통’을 인정받고자 한 과감한 ‘인정투쟁’이자 ‘역사투쟁’이었다. 북한은 북소갈등을 계기로 정치·경제·외교에서의 자주뿐 아니라 ‘역사에서의 자주’까지 추구하였던 것이다.

‘역사에서의 자주’는 항일무장투쟁과 해방에서 소련이 했던 역할을 지우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였다. 1960년대 이전에 북한은 김일성의 소련 이동과 88여단에서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련과 코민테른의 역할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왔었다. 하지만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방의 주체에 관한 해석이다. 북한의 초기 역사서들은 해방이 “위대한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달성되었음을 명확히 밝혔고,²³⁾ 이 인식은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다만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에는 소련군의 대일작전과 연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²⁴⁾ 공동 전투를 벌였다고 서술함으로써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해방에서 한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었다.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쏘련군대가 대일전쟁에 참가하여 일제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는 전투를 개시하자 혁명력량을 보존, 단련, 축적하면서 원쑤와의 최후 결전의 시기를 기다리던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은 김일성원수의 명솔 하에 곧 집결하여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를 격멸 소탕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쏘련군대와 함께 조선을 향하여 진격하였다.²⁵⁾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부 성원들은 쏘련군대와의 협동 하에 대일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부대의 작전 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였다. 항일유격대 소부대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수집한 정치군사정보들은 대일전쟁 전반의 승리를 위한 귀중한 작전자료로 리용되었다. (중략) 쏘련군대의 대일전쟁 개시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쏘련군대와 배합하여 전투행동을 개시하였다. (중략) 조선인민혁명군은 쏘련군대와 배합하여 북만, 동만, 그리고 국내에 걸치는 광범한 지역에서 전투행동을 전개하였으며 (중략) 맹렬한 진격전을 전개하였다.²⁶⁾

두 인용문 모두 소련군의 단독전투가 아닌 조선인민혁명군과의 공동 전투로 기술하고 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이 대일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화되

23) 金日成綜合大學 편, 1949, 『朝鮮民族解放鬪爭史』,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435쪽.

24) 북한에서 주장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은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이 직접 조직한 항일무장군사대오를 가리킨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 기간 동안 김일성은 항일유격대를 창설한 적이 없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란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조선인을 기본역량으로 조직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별칭이었다. 제2군의 대부분이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 혹은 ‘조선홍군’ 등으로 불렀고, 제2군 소속 조선인들 스스로도 중국에서 활동할 때는 동북인민혁명군으로, 조선에서 활동할 때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칭했다. 김성호, 2003, 『朝鮮人民革命軍』 호칭에 대한 일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25) 리나영, 1958,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435쪽.

26) 과학원 역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1961, 『조선근대혁명운동사』, 평양 : 과학원출판사, 421~422쪽.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이라는 두 책의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첫 번째 주체는 소련이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소련군이 없었다면 해방도 없었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4년 출판된 『조선로동당 력사교재』의 해방 파트 소제목은 “민족 해방을 맞이하기 위한 제 대책, 소부대 유격활동, 일제의 패망”이다. 소제목에서 소련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물론 “1945년 8월 9일 쏘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하였다. 쏘련의 대일전쟁 참가는 일제의 패망을 결정적으로 촉진시켰다”고 하여,²⁷⁾ 소련의 역할을 언급하였으나 이것이 전부였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도 빠졌다. 이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소련군의 대일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해방의 진정한 주체가 되었다.

‘혁명전통’에서 소련 지우기는 조국광복회 창설과정 기술에도 반영되었다. 다음은 1958년, 1961년, 1967년에 『근로자』에 실린 조국광복회 · 보천보전투 관련 논설이다.

김일성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채택된 반파쇼인민전선 로선에 대한 결정과 함께 조선혁명운동에 직접적 지도를 보장할 데 대한 일련의 방침들을 접수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였으며 (중략)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념안현 남호두에서 진행된 군정간부련석회의에서 채택한 방침에 따라 (중략) 1936년 3월 말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부가 이곳에 진출하였다.²⁸⁾

조국광복회의 조직은 당시 반파쇼인민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국제당의 새로운 로선을 조선 현실에 구현한 것으로 된다. 실로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우리나라 혁명운동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조선로동계급 앞에 제기된 국제적 임무를 정확하게 구현한 것으로 된다.²⁹⁾

김일성동지는 념안현 남호두회의와 무송현 동강회의에서 당시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전략전술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방침에 따라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가 결성되고 (하략)³⁰⁾

1958년의 글은 조국광복회 설립 배경으로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의 반제반파시즘인민전선 방침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³¹⁾ 1961년에는 코민테른의 노선을 언급하기는 하나 조국광복회 결성은 이 노선을 “조선 현실에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인식으로 변화하였다. 인용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를 실행한 사람은 물론 김일성이었다. 그러다가 1967년이 되면 코민테른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새로운 방침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며

27)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11쪽.

28) 리재림,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보천보전투 승리의 력사적 의의」, 『근로자』 6, 1958년 6월, 73쪽.

29) 「조국광복회 창건 25주년」 『근로자』 5, 1961년 5월, 19쪽.

30) 「보천보전투 승리 30주년」 『근로자』 5, 1967년 5월, 2쪽.

31) 1935년 7~8월에 열린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는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제국과 이념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반제반파시즘인민전선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36년 7월 동만주와 남만주에서 활동하던 중국공산당 소속 동북항일연군 제1, 2군의 주요 간부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때 김일성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3사를 제1로군 제6사로 개편하였는데, 제6사는 창바이현(長白縣) 등 백두산 일대에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고 조국광복회 결성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았다.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418~423쪽.

그 방침에 따라 조국광복회를 결성한 것으로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조국광복회는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시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필요한 과업이었던 반제반파시즘인민전선 형성을 조선에서 실현함으로써 그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로써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 세력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임무를 “빛나게 수행”한 사람들이 되었다.³²⁾ 여기에는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에 맞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고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강조했던 1960년대 ‘현실’ 북한의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에서 줄곧 유지되어온 전통임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숨어있다.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39년 5월 18일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함경북도 무산으로 진격하여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무산지구전투가 “당시 침략적인 중일전쟁을 진행하면서 소련에 대한 침공에 광분하던 일제를 배후에서 타격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에 대한 적의 침략 행동을 견제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일제의 “반쏘반공작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작전이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³³⁾ 무산지구전투를 『로동신문』에 최초로 소개한 1959년의 기사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³⁴⁾ 무산지구전투의 의의는 악화된 북소관계를 반영해 새롭게 ‘발견’한 ‘혁명전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의 소련 지우기는 식민지시기 조선 국내의 독립운동에 러시아 10월혁명이 미친 영향을 축소하는 경향으로도 나타났다.³⁵⁾ 소련과의 대립과 이로 인한 ‘혁명전통’의 변화로 국내외에서 벌어진 모든 독립운동은 김일성의 지도와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일원화되어 갔던 것이다. 소련과의 관계는 1964년을 기점으로 회복되었지만 복원된 북소관계는 이전과 달리 북한의 자주노선이 인정된 대등한 관계였다.³⁶⁾ 이와 더불어 항일무장투쟁에서 소련의 흔적을 지운 자주적인 ‘혁명전통’의 내용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32) 김경인,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역사적 의의」, 『로동신문』 1966년 5월 4일. 이 글에서 지적한 조국광복회 결성의 또 다른 배경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가진 “주체적 역량”이었다. 이 역시 정치·경제·외교·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던 1960년대 ‘현실’ 북한이 ‘역사’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이정남, 「1939년 5월 무산지구전투의 역사적 의의」, 『로동신문』 1965년 5월 24일.

34)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전투 승리 20주년」, 『로동신문』, 1959년 5월 23일.

35) 1950년대 발행된 『력사과학』에는 10월혁명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 여러 편 실려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과 조선민족해방운동」, 『력사과학』 11, 1955년 11월 ; 김희일, 「10월혁명 이후의 조선독립 문제」, 『력사과학』 5, 1957년 11월 ; 김상룡,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 하에 전개된 1920년대 말까지의 조선 학생운동」, 『력사과학』 5, 1957년 11월 ; 고정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과 조선에서의 농민운동의 새로운 양상」, 『력사과학』 6, 1958년 12월 등.

36) 1965년 2월 14일 북한과 소련 대표단 간 조인된 공동성명 중 다음의 구절은 변화한 북소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강조는 필자).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련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평등,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부합되게 친선과 협조의 정신으로 호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할 조약상 의무의 중요성을 특히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대표단 간의 공동성명」, 『로동신문』 1965년 2월 15일.

3.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중(對中) 사상투쟁

1960년대 초중반 소련과 대립각을 세웠던 북한과 중국 양국은 매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극심한 중소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은 북한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했고, 소련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졌던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했다. 즉, 1960년대 초중반 북한과 중국은 함께 소련의 수정주의에 대항하면서 역사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 절정은 1962~1963년이였다.

‘혁명전통’과 관련하여 이 시기 북중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1962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전(彭眞)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북한을 친선방문하였다.³⁷⁾ 평전은 4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였다.³⁸⁾ 기념대회에 참가한 수십 만의 주민 앞에서 평전은 현재의 북한이 “조선로동당의 령도 하에 30년대의 혁명전통과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과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중국의 혁명을 직접 원조”하였음을 역설하였다.³⁹⁾

같은 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논설도 항일유격대 창건일을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명절”로 이름 붙이고 “30년대 조선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과 혁명전통”의 의미를 선전하였다.⁴⁰⁾ 이 기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북한의 ‘혁명전통’으로 인정한 최초의 중국문헌으로 그 의미가 크다. 논설은 “30년 전 오늘, 장백산 기슭과 압록강 강변에서 한 갈래의 조선항일유격대가 탄생하였다”로 시작한다.⁴¹⁾ 이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만주 안투현(安圖縣)에서 항일유격대를 직접 창설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이었다. 김일성도 중국공산당 소속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전제하고 보면, 중국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화하는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유례없이 우호적인 북중관계를 배경으로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혁명전통’ 출발점 - 심지어 역사적 사실과 다른 - 을 인

37) 평전은 당시 중국의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박종철, 2011, 앞의 글, 52쪽.

38)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대회의 의미와 1962년 4월 한 달 내내 열린 다채로운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문미라, 2021,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9, 258쪽 참조.

39) 「항일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단장 평전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62년 4월 26일.

40)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 명절」 『인민일보』 1962년 4월 25일(국사편찬위원회 편, 2008, 『북한관계사료집』 63, 국사편찬위원회, 246~249쪽).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인민일보』는 『북한관계사료집』에 실린 번역본을 1차적으로 참고하였고, 필요할 경우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에 수록된 원문과 대조하였다(劉金質·楊淮生 編, 1994,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이하에서 『북한관계사료집』에 실린 『인민일보』를 인용할 때는 『사료집』으로 표기하고 서지사항을 생략한다.

41) 원문은 다음과 같다. “30年前的今天, 在長白山麓, 鴨綠江畔, 一支朝鮮抗日遊擊隊誕生了”(위 책, 1341~1342쪽).

정받은 것이었다.

1963년이 되자 북한은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중국은 북한의 ‘혁명전통’ 인식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조선인민군 창설 15주년을 축하하는 『인민일보』의 논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⁴²⁾ 『인민일보』가 조선인민군 창설 기념일에 축하 논설을 게재한 것은 1963년이 처음이었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중국 국방부장 린바오(林彪) 명의로 북한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민족보위상 김광협에게 축하 전보를 보내는 정도였다. 당연히 전보에는 ‘혁명전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⁴³⁾ 논설은 조선인민군이 김일성이 영도한 항일유격대를 기초로 하여 건립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처럼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강조한 구호와 노선을 단어 그대로 되풀이하며 북한의 정책을 찬양하였다.

같은 해 6월 최용건의 중국 방문과 9월에 이뤄진 류사오치(劉少奇)의 북한 답방은 북중 밀월관계의 정점이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북한·중국의 2인자였던 최용건·류사오치가 상대국을 차례로 방문함으로써 끈끈한 북중관계를 과시하고, 현대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위시한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관련한 쌍방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주목하였다. 아래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양국의 협력이 역사인식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2인자 최용건은 북중 우호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인물이었다.⁴⁴⁾ 그는 1926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그 이듬해 광저우봉기(廣州蜂起)에 가담하는 등 줄곧 중국혁명에 참가하였다.⁴⁵⁾ 국내의 조선공산당이 해체되기 전에 굳이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중국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최용건에 대한 중국 측의 깊은 신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최용건은 1963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항일전쟁 시기 팔로군 총사령관이었던 주더(朱德)를 만나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회고하고 하얼빈을 찾아 동북항일연군에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리자오린(李兆麟)의 묘소에 헌화하는 등⁴⁶⁾ 자신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중국공산당이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역시 최용건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그를

42) 「조선인민 무장역량의 영광스러운 명절」, 『인민일보』 1963년 2월 8일(『사료집』 63, 380~384쪽).

43)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부장 임포 원수의 조선건군절 축하 전보」, 『인민일보』 1960년 2월 8일 ; 「임포 원수의 조선건군절 축하 전보」, 『인민일보』 1961년 2월 8일 ; 「임포 원수가 김광협 대장에게 전보를 보내어 조선인민군 건군 14주년을 축하」, 『인민일보』 1963년 2월 8일(『사료집』 63, 46·154~155·240~241쪽).

44) 소련은 최용건에 대해 항상 중국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저우언라이(周恩來)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데다 부인은 중국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그를 “조선과 중국의 우호의 상징”이라고 칭하였다(「최용건」(1971년 9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편, 2020, 앞 책, 130~131쪽). 또 다른 소련문서는 최용건이 자신에게 펼쳐진 “중국의 우산”으로 인해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 자리를 유지하는 데 흔들림이 없다고 분석하였다(「발췌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자료에서」(1971년 5월 13일), 같은 책, 153쪽).

45) 광저우봉기는 1927년 제1차 국공합작 결렬 후 중국공산당이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중국국민당 계열 군벌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란을 가리킨다. 광저우봉기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조은경, 2019, 『중국 廣州지역 한인 독립운동 연구(1910~1948)』,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0~131쪽 참조.

46) 「신화사 회보 No. 1261」(1963년 6월 2일) ; 「회보 No. 1269」(1963년 6월 20일), 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편, 2020, 앞 책, 145쪽.

‘중국을 지원한 한인 혁명가’로 부각하였다.⁴⁷⁾

류사오치도 김일성을 대표로 한 조선의 혁명가들이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가하고 지원하였다고 하며 항일투쟁에서의 조중연합전선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조선인민은 (중략)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라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⁴⁸⁾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일방적인 영도가 아니라 조선인들의 희생으로 표현되었다. 북한의 독자적인 ‘혁명전통’을 의식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류사오치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 연설에서는 더욱 많은 ‘혁명전통’의 언어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들의 방북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된 군중대회에서 “김일성 동지가 영도한 항일유격대”, “혁명적 군중노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맑스-레닌주의 창조적 적용”과 같은 ‘혁명전통’의 핵심 개념들을 총동원하여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이 걸어온 길을 추켜세웠다. 북한의 ‘혁명전통 교육’이 북한 인민들 “자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자와 혁명자로” 변하게 하였으며 ‘혁명전통’ 교양의 당위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⁴⁹⁾ 이 자리에는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뿐 아니라 10만의 인파가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⁵⁰⁾

류사오치는 또 김일성을 향해 극도의 찬사를 보내며 그를 우상화하였다. 그의 연설은 김일성을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라 칭하며 “가장 숭고한 경의를” 바친다고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서도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거나 “김일성 동지와 같은 영명한 수령이 있는 것은 조선인민의 행복”이라는 말로 김일성을 찬양하였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밀한 벗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외치며 연설을 마무리하였다.⁵¹⁾ 이는 이미 1963년의 시점에 북한사회에서 김일성 개인숭배 경향이 만연하였고 이를 중국이 용인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은 1963년 북한의 정책 동향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문서에서 김일성 개인숭배가 더욱 강화되었고, “민족주의 사고방식과 김일성 개인숭배의 강화는 1963년 북한의 외교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의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하는 근간”이라고 적시하였다.⁵²⁾ 한 동독외교관은 1963년 조선로동당의 정치 이데올로기 과업이 “여전히 김일성 개인숭배의 선전과 결부하여 항일빨치산운동을 민족주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간파하였다.⁵³⁾ 이 분석처럼 류사오치의 연설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전통’으로 강조할수록 그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

47) 조은경, 2021, 「중국 廣州지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기념물 조성과 인식 변화 : 廣州起義烈士陵園 내 中朝血誼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6, 320쪽.

48) 「류소기 주석이 최용건 위원장을 환영하는 국연에서 한 연설」 『인민일보』 1963년 6월 7일(『자료집』 63, 39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在中國國內革命戰爭時期和抗日戰爭時期, 以金日成同志爲首的朝鮮革命者參加和支援了中國人民的解放事業. (중략) 朝鮮人民的許多優秀兒女爲中國人民的革命鬥爭獻出了自己寶貴的生命”(劉金質·楊淮生 編, 1994, 앞 책, 1463쪽).

49)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류소기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63년 9월 19일.

50) 「류소기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로동신문』 1963년 9월 19일.

51) 해당 발언은 『인민일보』에 다음과 같이 전재(轉載)되었다. “向朝鮮人民敬愛的領袖, 中國人民親密的朋友金日成同志, 致以最熱烈的問候和最崇高的敬意!”, “朝鮮人民 (중략) 能够有金日成同志這樣英明的領袖, 這是朝鮮人民的幸福”(劉金質·楊淮生 編, 1994, 앞 책, 1556·1563쪽).

52) 「1963년도 북한의 군사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평가」(1963년 12월 25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113~115쪽.

53) 「북한인민군 내 조선로동당 당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1963년 5월 23일), 앞 책, 59쪽.

다.

이처럼 밀착된 북중관계와 앞 장에서 살펴본 소련과의 대립은 ‘혁명전통’의 내용이 중국공산당·코민테른 등 국제적인 환경의 영향과 분리된 채 독자성이 두드러지는 형태로 구조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했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북한의 ‘혁명전통’에 공식적으로 동조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역사에서의 자주’를 마음껏 펼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에 없이 가까웠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균열의 조짐은 1964년 10월 소련에서 평화공존론과 개인숭배 비판을 주장하던 흐루쇼프가 실각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중국은 소련의 신지도부를 ‘호루쇼프 없는 호루쇼프주의’로 규정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지만, 북한은 그들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북소관계 복원에 나섰다.⁵⁴⁾ 북한 지도부는 북한에 산적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 소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⁵⁵⁾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은 북한이 1964년 말에 이르러 중국 일변도인 자신들의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날카롭게 포착하며 중국의 중화주의적 태도와 정치적 모험주의가 북한 지도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⁵⁶⁾

북중 간 발생한 미묘한 긴장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으로 전화(轉化)하였다. 1965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자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했던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⁵⁷⁾ 북베트남 지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북한은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를 제국주의 대항에 대한 포기와 미국과의 타협으로 인식하고, ‘좌익기회주의’, ‘민족이기주의’와 같은 단어로 중국의 자국 중심주의를 비난하였다.⁵⁸⁾

이렇게 급격히 냉각되던 북중관계는 중국에 불어닥친 문화대혁명의 열풍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았다. 1966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지도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곧 내전과 유사한 전면적인 무력투쟁으로 확산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소련을 수정주의로 규정하는 가운데 소련과 북한을 동일시하여 공격하였다.⁵⁹⁾ 1966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에 재임 중이던 황

54) 김보미, 2019, 앞 책, 411~421쪽.

55) 「조선노동당과 북한정부의 현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정보」(1964년 5월 19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123쪽.

56) Excerpts from the Report of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Some New Aspects of Korean-Chinese Relations in the First Half of 1965’, June 4, 1965(<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503>).

57)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북중갈등에 주목한 연구로 이상숙, 2007,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3-2 참조.

58) 196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헝가리 사절단에게 김광협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조선로동당이 많은 문제들에 있어 중국공산당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재차 표명하였다. 어떤 문제인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헝가리대사는 북한 지도부가 무엇보다도 북베트남 지원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1965년 10월 19일~28일까지의 헝가리 공산당 사절단의 북한 체류」(1965년 11월 3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162쪽.

59) 박종철, 2009, 앞 논문, 144~145쪽 ; 인교준, 2016, 『북한 유일사상체계 형성의 문화대혁명 요인』,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97쪽.

장업은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의 좌경노선과 내부 정치권력 투쟁이 뒤엉켜 일어난 것으로 정의하였다. 당시 중국의 실권을 쥐고 있던 류사오치와 덩샤오핑(鄧小平)이 소련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점차 선회하자 좌경노선을 고수하던 마오쩌둥과 갈등을 빚었고, 수정주의에 맞서 계급투쟁에 나서고 집권파인 류사오치 등을 공격하라는 마오쩌둥의 선동에 홍위병이 화답하여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⁶⁰⁾

당시 문화대혁명을 이끌던 홍위병들의 눈에 이에 호응하지 않는 북한은 소련이 이끄는 수정주의 진영의 일원이었다.⁶¹⁾ 김일성은 중국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문화대혁명을 북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였다.⁶²⁾ 내각 부수상이었던 김일도 문화대혁명을 “아연실색할 대사변”이라 칭하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⁶³⁾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서도 문화대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다양한 표현으로 중국을 겨냥했다.

가장 유명한 기사는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의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로 시작하는 「자주성을 옹호하자」다.⁶⁴⁾ 이 글은 ‘사대주의’와 ‘대국주의’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자주성을 가지지 않으면 “대국주의를 끌어들이며 교조주의를 낳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최근 국제 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그릇된 노선과 견해를 다른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이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국주의적 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명백히 중국을 향한 경고였다.

1966년 10월 5~12일에 개최된 제2차 당대표자회는 중국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다.⁶⁵⁾ 대회 개막일에 김일성은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란 제목의 보고에 나섰다.⁶⁶⁾ 보고의 첫머리는 <국제정세와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차지하였다. 이는 당시 북한이 가장 문제시했던 상황이 자신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었음을 상징한다. 김일성은 보고에서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강조는 필자).

좌경기회주의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 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되

60) 황장엽, 2006, 『황장엽 회고록 :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174~175쪽.

61) 董洁, 2014, 「“文化大革命”前期中朝關係의歷史考察(1966-1970)」, 『冷戰國際史研究』 18, 上海 : 冷戰國際史研究中心, 81쪽.

62) 이는 김일성이 흐루쇼프 실각 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된 브레즈네프와 1966년 11월에 가진 회동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김일성은 그럼에도 북한은 중국과 매우 가까운 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1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Comrade Zvetkov, on 15 March 1967(<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47>).

63) 「김일」(1973년 9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편, 2020, 앞 책, 294쪽.

64)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이 글은 『근로자』에 재수록되었다. 「자주성을 옹호하자」, 『근로자』 8, 1966년 8월, 2~20쪽.

65) 물론 이 대회에서 국제정세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회에서는 국제정세와 함께 경제문제(경제·국방병진노선 선포), 통일문제 등 세 분야가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종석, 1995, 앞 책, 297쪽.

66)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로동신문』 1966년 10월 6일.

풀이하며 초혁명적인 구호를 들고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그것은 당을 군중으로부터 리탈시키며 혁명력량을 분열시키며 주되는 적에 공격을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 당도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앞으로도 온갖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중략)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당들에 대하여 《중간주의》, 《절충주의》, 《기회주의》 등의 따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당에 대한 비방은 우리 당이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할 뿐 아니라 좌경기회주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줄 뿐입니다.

강조한 부분은 모두 문화대혁명과 중국을 향한 공격이었다. 동독외교관은 김일성이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명백한 비판을 가했다고 판단하였다.⁶⁷⁾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도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김일성의 보고가 전반적으로 반중국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북한 지도부의 첫 공개성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 작성자는 김일성이 소련대사와의 대화에서 문화대혁명을 가리켜 중국공산당과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좌익기회주의의 본보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고도 밝혔다.⁶⁸⁾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의 조직개편과 인사변동도 단행되었다.⁶⁹⁾ 눈여겨 볼만한 것은 당 지도부에서 김창만이 탈락했다는 점이다. 연안파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찍부터 친김일성계의 대표주자로 활동했던 김창만은 소련으로부터 “중국 영향력의 직접적인 통로”이자 반소적 경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⁷⁰⁾ 그런 그가 당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문화대혁명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소련은 제2차 당대표자회의의 인사변동을 문화대혁명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분명히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⁷¹⁾ 동독외교관 역시 “친중국과의 전형적인 대표로 우리에게 알려진 김창만과 하양천”이 당 지도부에 다시 선출되지 않았음을 본국에 보고하였다.⁷²⁾

제2차 당대표자회가 끝난 이후인 1967년 1월부터 북중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홍위병신문”을 직접 언급하며 홍위병들이 퍼트린 북한에서의 쿠데타 발생설을

67)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1966년 10월 5일~12일에 대한 정보」(1966년 2월 7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184쪽.

68) Fir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in North Korean Reports on Sino-Korean Relations in 1966, December 2, 1966(<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91>)

69) 조직개편으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제가 폐지되고 총비서, 비서의 직제로 개편돼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총비서에는 김일성이, 비서에는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석산, 허봉학, 김영주, 박용국, 김도만이 선출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총비서제 신설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종석, 1995, 앞 책, 298쪽; 인교준, 2016, 앞의 글, 109쪽.

70) 「발췌문: 1967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폴란드인민공화국 대사 나페라이와의 대담 기록」(1967년 7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편, 2020, 앞 책, 153쪽; 「발췌문: 1964년 5월 27일 『소비에트 여성』 잡지 조선 편집부 기자 이문일과의 대담 기록에서」(날짜 미상), 앞 책, 156쪽.

71) The DPRK Attitude Toward the So-called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March 7, 1967(<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70>). 황장엽은 이종석과의 인터뷰에서 김창만이 특별히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선전사업 오류와 오만, 여자 문제 등을 겹쳐서 숙청당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종석, 2000b, 앞 책, 52쪽.

72)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1966년 10월 5일~12일에 대한 정보」(1966년 2월 7일), 통일연구원 편, 2006, 앞 책, 187쪽.

반박하였다.⁷³⁾ 홍위병들이 북한에서 ‘수정주의자’ 김일성을 반대하는 정변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에 대응한 것이었다.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철석같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 성명은 문화대혁명 이후 북한 지도부가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 당의 사상적 통일을 체제의 존망을 가르는 문제로 인식했을 개연성을 잘 보여준다.

북중관계의 악화와 문화대혁명의 발발 또한 ‘혁명전통’의 내용에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좌경기회주의·모험주의와 끊임없이 싸워온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고 바로 이것이 ‘혁명전통’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논증하려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무산지구전투는 일부 “좌경분자”들이 만주의 항일유격대의 중국 관내지방 진출을 추진해 중국공산당 정규군과 합류하여 일본군에 더 큰 타격을 주자는 “좌경모험주의 노선”을 극복한 전투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⁷⁴⁾ 조국광복회 운동 또한 이전 시기까지 국내 공산주의 운동에 잔존하였던 종파주의, 좌경기회주의를 극복했다는 의의가 추가되었다.⁷⁵⁾

항일무장투쟁에서 좌경노선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은 민생단사건이었다. 1932년 11월부터 1936년 2월까지 지속된 민생단사건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항일유격대원들이 친일단체 민생단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쓰고 중국인 간부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⁷⁶⁾ 북한은 민생단사건을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 사대주의자들”이 벌인 “해독행위”로 정의하였다. 북한에 따르면 민생단사건에서의 “극단의 민족주의적 편견과 좌경배타주의”를 폭로하고 바로잡은 인물은 당연히 김일성이었다.⁷⁷⁾ 항일무장투쟁 시기 김일성의 직접 지도로 유격근거지에서 출판했다는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 등의 “혁명적 출판물”의 주요 의의 중 하나도 “좌우경기회주의, 교조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하여 “교조주의자와 사대주의자들, 민족배타주의자, 종파분자들”에게 타격을 준 것에서 찾아졌다.⁷⁸⁾

흥미로운 것은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한 ‘혁명전통’ 변화 양상은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보였던 그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은 ‘혁명전통’에서 소련의 흔적을 삭제한 것과 달리 중국과의 공동투쟁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기간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고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중국을 지우는 대신 그들과의 공동투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국제적인 연대성 등을 강조하였다.⁷⁹⁾ ‘역사’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신사의 성명」, 『로동신문』 1967년 1월 27일.

74) 이정남, 「1939년 5월 무산지구전투의 역사적 의의」, 『로동신문』 1965년 5월 24일.

75) 김을천, 「조국광복회가 수행한 혁명적 역할 -조국광복회 창건 30주년에 제하여-」, 『력사과학』 3, 1966년 6월, 5쪽.

76) 민생단사건에 대한 선구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金成鎬, 1999, 『1930年代 延邊 民生團事件 研究』, 백산자료원 참조.

77) 전형축,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꾸리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력사과학』 4, 1967년 8월, 6~7·13쪽. 이밖에도 민생단사건과 김일성의 ‘활약’을 그린 글로 방문권,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의 항일무장투쟁」, 『력사과학』 5, 1967년 10월 ; 「당대표자회의의 위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당대표자회 1주년에 즈음하여-」, 『근로자』 9, 1967년 9월, 13쪽 등 참조.

78) 리응필, 「우리 당 출판물의 혁명적 전통」, 『력사과학』 5, 1967년 10월, 44~45쪽.

79) 김희열, 「항일무장투쟁 시기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반제사상」, 『력사과학』 2, 1966년 4월, 5~6쪽 ; 김을천, 「조국광복회가 수행한 혁명적 역할 -조국광복회 창건 30주년에 제하여-」, 『력사과학』 3, 1966년 6월, 8~9쪽.

과 중국이 힘을 합쳐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친 것처럼, ‘현실’의 제국주의자인 미국에 함께 대항함으로써 자신들의 안보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침략적’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맞선 투쟁을 주제로 한 글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⁸⁰⁾

이와는 정반대로 한반도에 있었던 전근대 국가가 중국왕조에 침략당한 사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에 저항한 이야기 속에 대국주의와 사대주의를 거론함으로써 중국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⁸¹⁾ 항일무장투쟁에서 연대를 강조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중국인에 의한 재만조선인 착취를 묘사한 글도 발표되었다.⁸²⁾ 다만 중국의 침략을 문제 삼는 것은 전근대에 국한되었고, 조선인을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만주에서의 조선인 공산주의자 활동을 탄압한 중국(인)으로는 “반동군벌”이 지목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서술·인식은 항일무장투쟁에서의 조종연대와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빌려 ‘현재’의 중국을 비판하고자 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1960년대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주와 주체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중소 분쟁이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과 비대칭적인 대소·대중관계는 북한이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⁸³⁾ 북한에서 자주성과 주체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자 ‘혁명전통’도 새롭게 쓰일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혁명전통’에서 소련을 지우고 자신들이 대국주의, 교조주의, 좌경노선과 끊임없이 투쟁해온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음을 증명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우호적인 북중관계와 북소관계의 회복을 계기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국가로부터 자신들만의 ‘혁명전통’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북한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 4대 원칙뿐 아니라 ‘역사에서의 자주’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 80) 방문권, 「일제의 만주(중국 동북) 침략을 협조한 국제련맹의 반동적 채동」, 『력사과학』 6, 1965년 12월 ; 김희일, 「미국 침략에 대한 조선인민의 첫 역사적 승리 - 《사만호》 격멸 100주년에 제하여-」, 『력사과학』 3, 1966년 6월.
- 81) 선즈화 지음, 2017, 앞 책, 788~789쪽.
- 82) 문은도,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동만지방 조선인민들의 계급구성과 생활상태」, 『력사과학』 1, 1967년 2월.
- 83) 김보미, 2019, 앞 책, 485쪽.

『근로자』, 『력사과학』, 『로동신문』, 『인민일보』.

과학원 력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1961, 『조선근대혁명운동사』, 평양 : 과학원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8, 『북한관계사료집』 63,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 독립기념관 편, 2020,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자료 I』, 선인.

金日成綜合大學 편, 1949, 『朝鮮民族解放鬪爭史』,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

리나영, 1958,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會 編, 1972,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 別卷 北韓篇』, 東亞日報社.

劉金質 · 楊淮生 編, 1994,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准編』,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편, 1964, 『조선중앙연감(1964년)』,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통일연구원 편, 2006,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 선인.

Excerpts from the Report of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Some New Aspects of Korean-Chinese Relations in the First Half of 1965’, June 4, 1965, AVPRF, fond 0102, opis 21, papka 106, delo 20, listy 14-27.

Fir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in North Korean Reports on Sino-Korean Relations in 1966, December 2, 1966, AVPRF, f. 0102, op. 22, p. 109, d. 22, pp. 38-49.

Note on a Conversation with the 1st Secretary of the Soviet Embassy, Comrade Zvetkov, on 15 March 1967, PoA AA, MfAA, G-A 364.

The DPRK Attitude Toward the So-called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March 7, 1967, AVPRF f. 0102, op. 23, p. 112, d. 24, pp. 13-23.

2. 저서

김보미, 2019, 『김일성과 중소분쟁 :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 서강대학교출판부.

金成鎬, 1999, 『1930年代 延邊 民生團事件 研究』, 백산자료원.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연구소.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션즈화 지음, 김동길 · 김민철 · 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 모택동 ·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중앙일보사.

신주백,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와다 하루끼 지음, 이종석 옮김, 1992,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 비평사.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이종석, 2000a,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이종석, 2000b,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鄭鎮渭, 1985, 『北方三角關係』, 법문사.

황장엽, 2006,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히라이와 순지 지음, 이종국 옮김, 2013, 『북한·중국관계 60년 :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선인.

Szalontai, Baláz, 2005,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 Press.

3. 논문

김도민, 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보미, 2014,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54-3.

김성호, 2003, 「‘朝鮮人民革命軍’ 호칭에 대한 일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류승주, 2022, 『북한의 민족문화전통과 항일혁명전통 수립(1945~1967)』,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문미라, 2021,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9.

박종철, 2009, 「1960년대 중반의 북한과 중국 : 긴장된 동맹」, 『한국사회』 10-2.

박종철, 2011, 「중소분쟁과 북중관계(1961~1964년)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9-2.

이상숙, 2007,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3-2.

이준성, 2020, 「1950~60년대 『조선통사(상)』 간행과 북·소 역사학계 갈등」, 『사학연구』 137.

인교준, 2016, 『북한 유일사상체계 형성의 문화대혁명 요인』,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논문.

조수룡, 2018,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조은경, 2019, 『중국 廣州지역 한인 독립운동 연구(1910~1948)』,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조은경, 2021, 「중국 廣州지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기념물 조성의 변화 : 廣州起義烈士陵園 내 中朝血誼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6.

홍종욱, 2020,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77-3.

董洁, 2014, 「“文化大革命”前期中朝關係の歴史考察(1966-1970)」, 『冷戰國際史研究』 18, 上海 : 冷戰國際史研究中心.

문미라, 「1960년대 북소·북중관계와 ‘혁명전통’의 변화」에 관한 토론문

조수룡(국사편찬위원회)

1. 북한의 이른바 ‘혁명전통’은 자신들이 구성해 간 국민적 주체성(national subjectivity)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문미라 선생님의 발표문은 1960년대 북한이 진영 내부에서 소련 및 중국과의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국민적 주체성을 어떻게 구성해 갔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특히 1960년대를 다룬 기존 연구가 중소 사이에서 북한이 취한 외교적 입장을 주로 다룬 데 비해, 발표문은 그와 같은 외교 관계의 변화가 북한의 내부 담론에서 어떻게 합리화되거나 활용되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중소 분쟁의 와중에 북한이 자주노선과 자력갱생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게 되면서, 그에 맞추어 자신의 ‘혁명전통’에도 일정한 수정이 가해졌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다음에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발표문의 핵심 주제어는 ‘혁명전통’이 아닌가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혁명전통’을 북한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의 기원으로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북한 역사에서 ‘혁명전통’은 항상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1940~50년대에는 여러 ‘혁명전통’이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1950~60년대 북한 매체에서는 해방 후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 조국해방전쟁에서의 투쟁 등을 혁명전통의 일부로 간주하는 서술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혁명전통’의 개념적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1950년대와 1960년대, 1960년대 전후반의 용법이 달라진다면 그 또한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적 범주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북한의 ‘소련 지우기’ 또는 탈소련화는 1955년부터 60년대까지 추세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1955~56년 ‘주체’의 제기, 1961~62년 중소분쟁 와중에서의 대국주의 비판과 주체사상의 등장도 그 주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 1장에서는 북한의 대외 자주 노선 등장이 1962년 중소분쟁을 계기로 본격화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그 이전 북한이 추구해 온 ‘주체’ 확립과 북소 관계 변화가 언급되지 않아 1962년 북한의 소련 비판과 자주노선 천명이 마치 중소분쟁을 계기로 돌출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1950년대 중반 북한의 탈소련화를 추진하던 시기와 1962년 북소관계가 악화된 시기 ‘혁명전통’과 관련한 북한의 역사 서술은 어떤 차이를 보이며, 이는 어떤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2장에서 중소 관계 접근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대소 수정주의 비판, ‘혁명전통’에 대한 승인 등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다음의 사항도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군중노선’이나 ‘자력갱생’과 같은 개념은 중국과 북한이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원조를 따지자면 중국 쪽입니다. 두 개념 다 김일성이 중국공산당 휘하에 있던 시절 접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대약진과 천리마로 대표되는 당시 추구하고 있던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도 친연성이 있었고, 소련과는 갈등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만 양국이 접근하였다는 설명을 포함하여 양국 지도부가 추구한 이념의 본질적 공통점, 동일한 기원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풍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문화대혁명 당시 북한에서는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좌익기회주의’로 비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후에 중국공산당은 문혁을 ‘좌경모험주의’의 오류로 반성하였는데, 북한의 ‘기회주의’라는 표현은 이채롭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기회주의로 비판한 특수한 맥락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6. 베트남전쟁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북한이 중국과 입장 차를 보인 것은 전의 태도와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미투쟁과 국토완정이라는 입장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혁에 대해 보인 비판적인 태도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실 더 극좌적으로 나아간 것이기는 해도 대약진과 문혁 시기의 마오쩌둥에게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약진 시기 이를 지지하고 보조를 맞추었던 북한이 문혁에 대해 비판한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북한 쪽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